

# 글로벌 우주산업

## 높아진 변동성에도 장기 성장성 유효

- SpaceX 상장 기대가 만든 급등, 이벤트 소멸에 따른 수급 되돌림 국면
- 나스닥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조정 PER 44 vs 31)이 수급 민감도를 증폭
- 정책·예산·발사 인프라가 받치는 장기 성장성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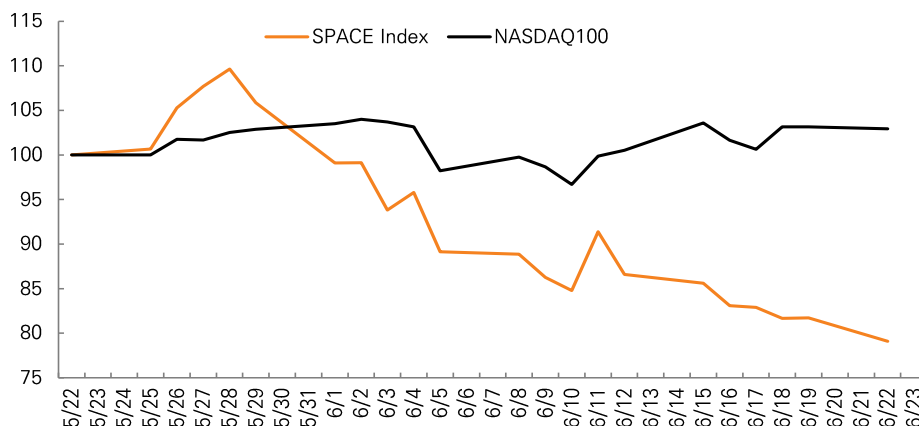
### 한 달 새 사라진 +56%p 알파

우주산업의 주요 인덱스인 Space Index(+26.7%)는 YTD 기준으로 여전히 나스닥 100(+20.2%)을 앞서고 있다. 문제는 궤적이다. 5월 28일 Space Index는 연초 대비 +75.7%로, 같은 시점 나스닥(+19.7%)을 무려 +56%p 앞섰다. 그러나 이후 4주 만에 그 격차는 +6.6%p로 축소됐다. 최근 한 달(5/22~6/22)만 떼어 보면 우주 -20.9% vs 나스닥 +2.9%로, 약 24%p를 언더퍼폼했다. 이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SpaceX 상장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유입된 기대 매수세가 상장이라는 이벤트 소멸과 함께 되돌려지는 전형적인 수급 현상으로 판단한다. 즉 급등을 만든 동력이 기대감이었던 만큼, 그 소멸 과정에서의 조정 또한 수급적 성격이 강하다.

### 비쌌던 만큼 더 민감했다

26년 1분기 기준 조정 PER(적자·일회성 제외)은 나스닥 31배, 우주 인덱스 44배로 약 40% 높다. 밸류에이션이 높을수록 주가는 금리·심리·수급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승장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레버리지로 작용하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그대로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번 되돌림의 낙폭이 컸던 배경이다. 공교롭게도 인덱스 고점과 같은 날인 5월 28일, 블루오리진 뉴글렌이 케이프커내버럴 LC-36에서 정적연소시험 중 폭발했다. 유일하게 운용 중이던 발사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복구에 1년 이상(업계 추정 최소 15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단기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나, 이는 개별 기업 이슈이며 섹터 전반의 발사 수요 구조를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림 1. 뉴 글렌 폭발 사고 및 대형 IPO 이벤트 이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우주 섹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럼에도, 정책과 인프라는 쌓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26년 들어 한층 구체화됐다. 대표적으로 FAA는 3월 17일, 상업 발사·재진입 라이선스를 단일 체계(Part 450)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4개로 나뉘어 있던 레거시 규정을 성능 기반의 단일 프레임워크로 대체한 것으로, 이제 하나의 면허로 복수의 기체·미션 프로파일·발사장을 포괄할 수 있다. 발사 인허가 병목을 완화해 cadence(발사 빈도)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다. 이는 작년 두 차례 행정명령(상업 우주 경쟁 촉진·미국 우주 우위 확보)이 명문화한 규제 간소화 기조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후로도 NASA 대대적 조직 개편(5월)과 마일스톤 기반 계약 개혁 등 행정명령 이행 산출물이 상반기 내내 이어지며, 제도 정비가 가속되고 있다.

발사 인프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핵심은 capacity 확장과 노후 설비의 신세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6월 8일 미 우주군은 반덴버그 SLC-9를 소·중형 발사체용 신규 발사장으로 개발·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찾는 RFI를 공개했다. 이는 반덴버그·케이프커내버럴의 발사 수요가 기존 발사장 capacity를 압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6월 16일에는 반덴버그 SLC-6의 셔틀·델타IV 시대 구조물이 철거되며, SpaceX가 팰컨9·헤비용 수평통합시설과 착륙패드 2기를 갖춘 신형 발사대로 재건축에 착수했다. 발사 인프라 병목의 완화는 발사 단가 하락과 발사 빈도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섹터 전반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표 1. 2026년 상반기 미국 우주 정책·제도 주요 변화

시점	정책 / 제도	주도	핵심 내용
2025.12	미국 우주 우위 확보 행정명령 (EO 14369)	백악관	상업 솔루션 최우선 구매(Commercial-First), 28년 달 복귀·30년 영구기지 시한 명시
2026.03	FAA Part 450 단일 라이선스 전환 완료	FAA	발사·재진입 면허 일원화, 단일 면허로 복수 기체·미션·발사장 포괄 → cadence 확대 기반
2026.03	하이브리드 LEO 정거장 대안 (Ignition)	NASA	ISS 공백 대비 '정부 코어 모듈 + 민간 부착 모듈' 대안 제시
2026.05	NASA 대대적 조직 개편	NASA	6→4 부분 통합(HSMID·RTMD 신설), 본부장 국장 직보로 관료주의 축소
2026.06	양자 혁신 행정명령 (EO 14411)	백악관	NASA에 양자 센싱·네트워크킹의 우주 응용 5개년 로드맵 의무화
2026.06	마일스톤 기반 계약 개혁	NASA·상무부	비용보전(Cost-plus) 탈피, OTA·SAA 기본값화 → 신생기업 진입장벽 완화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결론: 수급은 흔들려도, 방향성은 유효**

글로벌 우주산업은 펀더멘털(정책·발사 인프라)은 확장되는 가운데 추가만 수급 요인으로 조정된 국면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해소됐으나 여전히 지수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① 일부 종목의 상장 직후 보호예수 해제 등 수급 물량 ②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금리 민감도 ③ 발사 사고 등 이벤트 리스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